

국제도시로서의 서울을 향해 - 생활환경의 국제화

- 서울시가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요구이자 생존전략임
 - 국제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 등 기간산업의 국제화뿐만이 아니라 도시전체의 생활환경 및 삶의 질, 그리고 국제비즈니스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제반 질적, 양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함
- 특히 국제허브 건설이 서울시에 새로이 유입되는 외국인을 위한 역차별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서울에 사는 내·외국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환경조성이라는 차원에서 비전 및 시행 방향이 설정되어야 함
 - 이를 위한 방안은 다양하나 서울시의 생활환경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함

서울의 생활환경 개선 - 국제화를 비전으로

- 생활환경 개선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알 수 있고 쉽게 공감하는 내용이나 세심하고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수행과정이 동반되어야 성공함
 - 생활환경의 개선방향은 결국 생활환경을 국제적인 일류도시 수준으로 맞추어나가는 것임
 - 서울시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설문조사와 인터뷰 내용에서 제안된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, 분야별로 제시된 내용 중 보다 구체적인 제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

구체적인 개선 방안 예 - 교통

- 지하철: 서울시의 지하철에 대한 외국인의 견해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

다음의 개선사항이 제시됨

- 시내 주요 거점만을 연계하는 고속지하철 노선 추가 설치(예: 런던, 동경, 파리)
 - 인천공항에서 서울시내 비즈니스 중심지로 바로 연계되는 경고속전철 노선(예: 홍콩, 싱가포르, 런던)
 - 김포공항 행 지하철 정거장 수 과다: 정거장 별 승객 수를 감안하여 줄일 수 있는지 검토 필요
 - 지하철 운행시간 연장 (특히 주말), 지하철역 내 보다 상세한 주변 지역도 비치(목적지 확인이 보다 용이할 수 있도록)
- 버스 및 택시: 이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
- 서울시내 교통량의 감소를 위해 시내에 들어와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서울시 외곽지역으로 이전
 - 버스운전기사의 운행 습관 개선 및 버스노선의 간소화
 - 정리되고 체계적이며 이용 가능한 버스노선도(예: 북경)
 - 택시의 탑승거부 행위 근절
 - 택시내 비치된 외국인 도우미 전화의 효율성 제고 필요
- 도로재정비: 시정부가 도로계획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지역재개발을 수행해 나가면 결국 서울시 전체가 제대로 정돈된 도시의 형태에 근접해 갈 것임
- 교통통행관련 규정 및 교통량 관리 기준 및 감독체계 강화
- 교통체증 개선

- 대중교통수단 이용 인센티브 강화 (예: 보다 다양한 할인 종류 개발, 대중교통 이용시에도 마일리지 적립가능 안 등)
- 신호등을 노면상의 정지표시로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음. 서울시내에 불필요한 신호등이 너무 많아 교통체증 가중 초래
- 일부 교통 극심 체증 지역의 체증현상 해소 시급 (예: 한남대교의 경우 노선확장을 통해 교통체증이 상당히 개선됨. 그러나 여전히 경부고속도로 진입 라인수를 더 늘릴 필요가 있으며, 대교 남부지역의 서부에서 진입하는 진입로를 한남대교를 지나 우회전 하도록 대체하면 한남대교 체증 감소에 도움이 될 것임. 자하문길과 광화문길 교차로 신호등 합리화, 서울시청 광장 진입로 소형길의 경우 일부 폐쇄 안도 검토할 필요)
 - 교통량 및 교통방향을 고려하여 일부 한강 교량을 일방통행화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
 - 고속도로의 측면 안전지대의 수를 확대하여 사고차량 또는 휴식차량 우선 견인 공간 추가 확보. 예를 들면 경기도지역에서 도로상 사고 발생시 서울지역 내부 교통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와의 공조가 필요함

공해

- 자동차 매연가스 방출 매년 검사, 허용량 초과 차량 벌금(예: 시카고)
 - 엔진크기 기준 과세가 아닌 매연량을 포함하는 복합과세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교통부 건의 필요(대형 신규차량의 매연가스 배출량이 구형소형차보다 작을 수 있음)
 - 시내버스의 매연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대체연료 또는 대체엔진 이용 가능성 모색(예: 샌프란시스코, 캘리포니아주)

- 서울시 네온사인 수 통제하면 거리 미관 개선 및 에너지절약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, 보다 많은 가로수 설치, 거리 쓰레기통 추가 비치로 거리 청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
- 녹지공간 확대(용산 미군기지 철수 후 동 지역을 뉴욕 센트럴 공원, 런던 하이드 공원에 필적하는 공원으로 개발하는 방안)
- 초등, 중등학교에 공해의 문제점을 인지시키는 교과프로그램 설치 제안

영어 사용

- 서울을 한국어-영어가 공용될 수 있는 환경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: 영어 사용권은 그 자체가 갖는 경제적 이점 외에 아시아 타도시와의 경쟁 차원에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
 - 영어의 상용화와 서울시 곳곳에서 다양한 국제언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서울시의 국제도시 이미지는 제고됨
 -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기회가 더 확대되어 궁극적으로 사회전체적인 비용 감소 효과
 - 세계적인 금융거점도시(런던, 뉴욕, 홍콩, 싱가포르, 암스테르담 등)는 영어권이거나 영어상용지역임
- 구체적인 제안사항으로서는
 - 도로표시, 버스/지하철 지도, 안내책자, 관광가이드책자, 식당메뉴, 각종 고지서(행정, 은행, 각종 계약서류 등)에 한영문 병용 서비스를 실시
 - 영문표기시 철저하게 표준화되고 일관성있는 표기법을 사용하여야 함(예: 지하철2호선 선릉역의 경우 지하철내부와 지도상의 표기상의 경미한 차이로 다른 역으로 오해하는 경우 있음)

- 다른 외국어의 경우,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시내 곳곳의 한자표기는 특히 중국어권 국민과 일본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. 이를 확대하여 중국인 및 일본인들에게 보다 큰 편의를 제공하거나 이 비용이 크다면 한글문 중 한자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한자로 표기하면 중국, 일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임
- 주요 공공서비스 기관(경찰, 병원 특히 응급실, 소방서, 119기동대 등)에 영어사용가능 인원을 최소 1명 상시 배치
- 중소기업에도 영어사용가능 인력을 충원하도록 지원하고 이들 기업들의 외국인 네트워킹을 장려함
- 국제학교의 수를 늘리고 그 수준을 높이며, 이들 학교에 대한 정보가 국내외에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서울시 주도로 국내외 홍보: 이는 특히 외국인자녀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한국에서 받은 교육을 인정받기 위해서 필수적임
 - 국제학교 입학의 우선권을 외국인자녀에 주고, 학교측에는 외국인학생들을 완벽히 수용하는 조건하에 재정상의 이유에 한해 한국인학생 입학 쿼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
- 영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 확대: 각종 정보의 영어화 폭을 늘리고 외국인이 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. 기존의 영어정보소스에 대해서도 인지도가 낮아 보다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함(예: 인터뷰한 외국인 중 서울시의 영문 웹사이트에 대해 모르는 외국인 다수 존재)
 - 인천공항 입국시 세관 통과 전에 외국인이 서울시 지도 및 서울시의 각종 행사 및 생활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서울시 안내 부스를 설치하고 환전을 위한 ATM 설치 제안
 - 서울시의 적극적인 해외 홍보전략 (예: 해외 유수 잡지 광고 등)

- Hi Seoul 페스티벌에 외국인 참여(혹은 영어서비스) 프로그램 증대
 -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외국인을 위한 도움활동(웹사이트, 전화 핫라인 등)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외국인을 위한 정보소스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질을 보다 개선하여 외국인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접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
 - 외국인의 관심이 높은 서울의 전통적인 지역 또는 보다 한국적인 장소 중 홍보가 상대적으로 덜 되어 있는 곳 많음(예: 황학동 벼룩시장)
 - TV 프로그램: 일부 서울소재 호텔 수준으로 외국어채널을 늘리되 이를 선택할 수 있는 패키지형으로 운영(예: 벨기에, 네덜란드의 경우 본국어 외에 영, 독, 불, 스페인어, 이탈리아어, 중국어, 터키어 등 다양한 외국방송채널이 기본 패키지에 포함)
- 서울시가 세계적인 조형미/기능성을 갖춘 극장 또는 문화공간을 보유, 이를 서울의 명소 중의 하나로 조성하고 다양한 우리나라 및 외국문화(영화, 전시 등)를 소개하는 전문시설로 운용한다면 문화의 상호교류 증진과 홍보의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
 - 서울지역에서 일어나는 문화, 이벤트, 관광, 기타 다양한 사항에 대한 국내외 홍보작업을 서울시 인력 또는 재원으로만 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민간이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

주택

- 서울시 주택가격이 주택의 질에 비해 높다는 것이 내·외국인의 일반적인 견해임. 이는 주택시장이 아직도 수요자시장 이라기보다는 공급자시장이라는 점이 큰 요인임

- 특히 외국인의 대부분이 월세주택을 이용하고 있는데 국내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나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관행으로 1년치 월세를 한번에 지불하는 것을 요구한다거나, 월세보증금 규모를 내국인임차인들에 비해 훨씬 크게 요구하는 것을 들 수 있음
- 내·외국인간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, 서울시가 보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를 외국인거주지역으로 개발하여 외국인들이 이를 구입할 수 있고 또 되팔 때는 서울시에만 팔 수 있도록 하여 서울시 보유 외국인거주용 주택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안 검토 필요

국내외에 서울의 비전을 알려야

- 서울시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은 서울시가 아시아의 허브도시로 부상하고 다른 도시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며 서울시를 외국인들이 찾고,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필수적인 과제임. 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,
 - 시가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해내는 수행의지를 국내외에 보이고
 - 개별적인 건축 및 공간 조성을 서울시 전체가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에 대한 확실한 비전하에 추진하며,
 - 서울시 생활환경 향상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외국인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

오용협 ·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

yho@sdi.re.kr

(이 내용을 준비하는데 인터뷰 및 자료제공으로 도움을 주신 주한외국인 및 한국계 미국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많은 시간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전수지, 앙드레 바일리씨께 감사드립니다.)